



리고 사람의 눈에 좋아보이는 기준을 따라 저주와 축복을 구분하고 있다. 사람들이 관심심을가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과 물질적 풍요, 건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혹은 옳다고 하는 것을 복으로, 사람의 눈에 싫어 보이는 것을 저주로 구분한 것이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며 사람 중심의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학도 아니고 성경신학도 아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교훈도 아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과 피하고 싶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선한 신이나 아니면 ‘하늘’이 주신다고 믿었고 싫은 것은 귀신들이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우리의 좋은 것을 탐내고 빼앗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귀신들의 장난이며 귀신들의 심술궂은 책망의 결과 사람들에게 불행이 오고 재난이 온다고 믿었다.

가계저주론은 한국의 전래 미신적 기복사상의 기준을 그대로 전제로 삼아 그 기초 위에 성경적 자료들과 이론들을 올려놓은 것이다.

### 신앙의 길

가계저주론을 믿고 가계치유론을 받아들이다고 해도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인생은 변함이 없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대로 남는다. 기독교인도 병에 걸린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사고를 만나거나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쇠약해지고 결국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온갖 인생의 고비와 방해물들에 부딪

히면서도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거룩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가계저주론이 제시하는 저주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건강과 부와 풍요와 권세와 존경을 치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장수하며 죽음을 곱게 맞이하는 불신자들도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거룩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불행이 일치하지 않아도 성경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상에서는 신자가 성공하는 것 못지 않게 불신자들이 성공한다. 신자가 건강한 것 못지 않게 불신자도 건강을 유지한다. 반대로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 병이나 고생, 사고가 별 차이가 없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우주와 자연, 인생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합리주의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붙잡혀 처형당했다. 헤롯 아그립바는 다시 베드로를 붙잡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감옥에서 빠져 나왔다(행 12:1~10). 왜 야고보는 젊어서 죽어야 했고, 왜 베드로는 살아 나와야 했는가? 인간의 눈으로는 저주와 축복으로 구분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현상적,